

북한 유년잡지 『꽃봉오리』 체제와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내면화 전략*

최윤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잡지인 『꽃봉오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꽃봉오리』는 사회주의 도덕교양과 혁명 전 아동들의 지적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된 유치원생용 교양물이다. 지금까지 『꽃봉오리』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꽃봉오리』의 체제와 구성을 살펴 북한 유년잡지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이란 북한의 모든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교양덕목이다. 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를 기본으로 학교와 사회, 가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 질서 등을 말한다. 특히 조직과 집단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정신,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 교양에 있어 기본이 되는 덕목들이다.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내면화를 위해 『꽃봉오리』는 잡지의 구성과 편집에 있어 전략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설을 통한 통치자와의 만남, 모범적인 주인공들의 제시, 그림동화에 숨어 있는 사회주의 도덕교양 덕목, 동물의 비유를 통한 계급교양, 학습퀴즈에 나타난 선군사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인간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북한 사회의 요구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꽃봉오리』는 취학을 앞둔 유치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3885)

** 건국대학교 강사, bomtree1@naver.com

아동들의 사상교육을 위한 교양잡지로써 그 임무를 충실히 담당하고 있었다.

- 주제어 : 북한유치원, 유년기, 유년문학, 유년잡지, 그림잡지, 『꽃봉오리』, 사회주의 도덕교양, 내면화

목차

- | | |
|------------------------|--------------------------------|
| 1. 서론 | 3. 잡지의 구성방식과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내면화 전략 |
| 2. 『꽃봉오리』 발간 목적과 편집 체제 | 4. 결론 |

1. 서론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흔히 ‘동심(童心)’의 정서는 이념으로 물들기 이전의 원초적 심성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매개의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사상교육을 통해 단련되어 온 북한 어린이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현안임을 깨닫게 된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만 5세부터 시작되는데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이들은 이때부터 혁명과업을 계승해 나갈 미래의 주인공 ‘꽃봉오리’로 상징되어 사회주의의 혁명적 인재가 되기 위한 실질적 교육을 받게 된다. 만 5세 전후의 유아기는 인지·정서·사회 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경험들은 인간의 행동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교육의 첫 단계

인 유치원 시기에 어떤 교양물을 읽으며 성장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주의 도덕교양 덕목의 내면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잡지인 『꽃봉오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꽃봉오리』는 북한의 교육신문사에서 일 년에 6번,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이다.¹ 지금까지 북한의 아동잡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아동문학』의 주 독자층이 소학교 이상의 아동들이라면 『꽃봉오리』는 이보다 더 어린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물이다. 『꽃봉오리』는 본격적인 문예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년기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양 잡지이다. 북한의 의무교육이 만 5세부터 시작되고 이미 유치원 시기부터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잡지의 내용과 구성을 살피는 일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가 문해력이 낮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꽃봉오리』의 체제와 내용을 통해 북한 유치원 잡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령 전 아동들의 사상교육을 위한 북한의 목적과 의도가 잡지의 체제 및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실에 입수되어 있는 『꽃봉오리』는 2003년 1호(1~2월)부터 2019년 4호까지인데, 이를 통해 최근 15년 동안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꽃봉오리』 발간 목적과 편집 체제

북한은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만년대제로 여기며 강성한 사회주의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인간을 당과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그들의 교육사업은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며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취학 전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교양의 첫 공장’으로 보는 북한의 시각에서, 유치원 아동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원하는 북한식 인재를 만들기 위한 첫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꽃봉오리』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잡지로 1960년 4월에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아동도서출판사에서 격월간으로 발행되다가 1963년 1호부터 월간으로 되었으며 1966년 3호부터는 학생소년출판사에서, 1969년 5호부터는 교원선전수첩출판사에서, 1975년부터는 교원신문사에서 발행되었다.² 현재는 북한의 교육신문사에서 격월로 발행되고 있으며 4x6배판, 총 24면으로 되어 있다. 컬러로 되어 있으며 24면 모두 그림·사진 등의 시각자료가 들어간다. 남한에 입수된 『꽃봉오리』는 2003년 1호부터인데, 발행사인 교육신문사는 북한의 교직자와 교육관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출판물들을 편집, 발행하는 출판기관이다. 현재 『꽃봉오리』를 비롯하여 『교원신문』,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교양원』, 『자연과학』 등의 잡지와 신문들을 발행하고 있다.

『꽃봉오리』는 학령 전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된 잡지이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린 아동들을 ‘주체

2 『조선대백과사전 25』, 백과사전출판사, 2001, 481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이는 『조선대백과사전』에 서술된 잡지의 편집 방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잡지 『꽃봉오리』는 원색으로 된 그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짤막하고 쉬운 글을 배합하여 재미있게 편집되었다. 잡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과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고 그들의 지적발전에 필요한 내용들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실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잡지 『꽃봉오리』의 편집에 직접 관여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김정일은 『꽃봉오리』에 들어갈 그림 원화까지 직접 검토하면서 잡지의 편집내용과 그림 형식에 대한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³ 『꽃봉오리』의 주 독자는 유치원 아동들이지만 잡지의 성격상 유치원 아동들을 직접 교육하는 ‘교양원’들도 독자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편집부나 집필진은 잡지에 별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글 작가의 이름은 생략된 경우가 많다. 이는 수록된 글들이 개인 창작 글 보다는 이미 알려진 글을 각색하거나, 설명 또는 소개하는 글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그림 잡지라는 잡지의 특성상 그림 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집필진의 이름을 대략 정리해보면 글은 김영준, 안미연, 서예숙, 조순녀, 김성보 등이 그림 작가로는 장미화, 리미옥, 조돈하, 계명천, 김춘광, 리광혁, 안영국, 김기용, 리효광, 차명수, 채명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진은 본지기자로 소개되고 있는 김영한, 현국, 권재덕 등이 주로 담당하였다.⁴ 집필진에 대한 구체적

3 위의 책, 481면.

인 정보는 없지만 이들 중 일부가 교양원들을 위한 잡지 『교양원』에 평론 등을 자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꽃봉오리』 집필진은 주로 교육관계종사자들로 추측된다.⁵

『꽃봉오리』는 일반 잡지들처럼 앞 페이지에 목차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매 호 수록된 글과 그림의 순서, 페이지 수 등에 있어서는 창간 당시부터 거의 일괄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잡지의 분량은 표지까지 합하여 총 24면으로 되어 있는데, 24면 모두 짧은 글을 포함한 그림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그림잡지’로 구분하기도 하는 것이다. 종이의 질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림은 한결같이 원색적인 컬러로 되어 있으며, 매 호 제목이 있는 표지화를 선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작가들이 번갈아 가며 표지화를 그리고 있는데 「미국놈을 때려부시자」, 「장군님 계시여 조선은 빛나요」, 「우리 위성 만세!」, 「아버지 원수님께서 오셨다」 등의 표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표지화는 매호 발간시기에 맞추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꽃봉오리』 표지

- 4 본지 기자로 이름을 밝힌 김영한의 경우 동시를 비롯한 글과 사진을 함께 다루고 있어 사실상 이 잡지는 외부 기성 작가들 보다는 본지 기자들의 글과 사진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2019년 3호에 『꽃봉오리』 그림작가들의 사진과 함께 소개글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림작가 조돈하, 리미옥, 계명천을 평양교원대학의 선생님들로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잡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장에는 언제나 북한 「혁명사적지」의 사진이 등장한다. 사진과 함께 소개 글도 실고 있는데 매호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되는 「혁명사적지」는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고향집을 비롯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어린 시절 오르던 나무, 군사놀이를 하던 바위, 공부하던 책상까지 수령이 거쳐 갔던 크고 작은 모든 자취를 의미 있게 소개하고 있다.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덕골혁명사적지, 삼석소학교, 모란봉혁명사적지, 금강산혁명사적지, 평양방직기계공장 등은 모두 김일성 가계, 그들의 행보와 관련된 곳들이다.

이어 등장하는 수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매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정 코너이다. 주로 김정일의 어린 시절(주로 유치원시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린 김정일의 남다른 면모와 모범적인 행동을 한 편의 짧은 일화로 소개하고 있다. 수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유치원 정규 수업 과정 속에서도 정치사상교양을 위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상급학교에 취학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이와 연계하여 『꽃봉오리』에서도 수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사회주의 혁명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잡지에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교감하는 김정일, 김정은 두 지도자들의 모습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지도자가 어린이에게 쓴 친필 편지, 유치원 방문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김일성 가계인물 중 『꽃봉오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취학전 교육 내용에 표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북한 사회에서 인간개조교육⁶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각 학교

6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교육정책은 김정일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상교육과 인간개조사업을

와 유치원을 중심으로 세 세대의 마음속에 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심어주는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 사후 2012년부터는 『꽃봉오리』에 김정은이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성을 가진 위대한 전설적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면, 김정은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따뜻하고 인정 많은 친근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아버이 수령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충성을 표현하는 동시(송시)나 찬미의 글도 그림과 함께 잡지의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 『아동문학』과 비교해 볼 때 동요, 동시, 동화, 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 장르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다룬다 하더라도 별도의 장르 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보다는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내용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야기 중에서도 전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백두산전설」을 비롯한 북한의 수많은 혁명 전설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전설들은 어린 이들의 눈길을 끌만한 환상적인 그림과 함께 구어체의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설 외에 「지난날 이야기」, 「항일혁명투쟁이야기」도 매호 빠지지 않고 수록되는 고정 코너이다. 「지난날 이야기」는 주로 해방 전 지주의 구타나 착취로 인해 고통 받는 인민의 모습을 통해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항일혁명투쟁이야기」에서는 항

부각하면서 이념 강화에 주력하였다. 인간개조의 원리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여 인간개조사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개조를 제대로 해야 인간개조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정치사상교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주체사상의 방법적 원리인 인간개조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방법은 1985년 조선노동당 창당 40돌 기념으로 출간된 강운빈의 『인간개조이론』에 나타나고 있다. 강운빈, 『인간개조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일혁명투쟁 당시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한 유격대원과 아동단원들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글들은 마치 만화나 그림책처럼 글의 순서에 번호를 붙여가며 그림과 함께 짝을 맞추어 소개되고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잡지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한층 더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 들려준 이야기를 각색했다는 옛이야기를 비롯하여,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우화와 창작동화, 여기에 세계 각국의 명작동화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우둔한 곰과 지혜로운 토끼가 등장하는 4컷 만화 「애기토끼와 애기 곰」도 매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잡지의 재밋거리이다. 질서, 예절, 보건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기기 쉬운 규칙들을 곰의 실수를 통하여 보여주고 현명한 토끼가 이를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다. 잡지의 후반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필요한 학습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필요한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한글공부(말놀이), 과학상식, 셈 세기, 민속놀이,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꽃봉오리』는 다양한 내용의 글과 그림, 사진, 만화, 퀴즈 등으로 구성된 유년 아동을 위한 독보적인 교양물로서 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공들여 제작하고 있는 잡지이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컬러로 된 그림과 사진 등을 동원하여 창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는 것은 후대 교육에 대한 북한 사회의 관심과 책임감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잡지의 구성방식과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내면화 전략

사회주의 도덕이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를 기본으로 학교와 사회, 가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 질서 등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사회의 도덕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으로서의 ‘사회주의 도덕’과 북한의 모든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교양덕목으로서의 ‘사회주의 도덕교양’이 그것이다. 중심이 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교과목으로서의 ‘사회주의 도덕’ 내용을 모든 인민들이 습관화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 사회주의 도덕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과 집단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정신,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 교양에 있어 기본이 되는 덕목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덕목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주의 도덕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어진다.⁷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사회주의 도덕교양에서 중심이 된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 유치원 아동들의 사회주의 도덕 교양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사상과 품성은 유년기에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회주의 세계관에 대한 골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기에 사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혁명화,

7 김정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중심」, 『철학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1호, 17면.

노동계급화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정치사상 교양, 지적교육, 정서교육, 체육교육, 기타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원 아동들의 도덕교양 학습은 주로 정치사상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조되고 있는 구체적 덕목을 살펴보면 협동, 애국, 효, 예절, 근검절약과 청결, 우애 등이다.⁸ 사회주의 도덕의 최고 덕목인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위의 덕목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내면화하여 일생동안 충실히 지켜나가야 할 덕목들이다.

잡지 『꽃봉오리』는 정규 유치원 교육과정과 그의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편집,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치원 과정에서 강조되는 이러한 교양 덕목들을 『꽃봉오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아울러 잡지는 아동의 내면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잡지의 구성 및 서술 방식을 통해 나타난 5가지 특성을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전설을 통해 만난 위대한 수령

‘인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구전 창작된 구비문학장르에 큰 의미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설은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장르이다. 특히 옛 시대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대의 전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한 구비문학의 특징이다. 전설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인식을 준다. 또한 전설은 주

8 박재환, 『북한의 유치원 교육』, 양서원, 2002, 94~95면.

로 실존 인물이나 그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등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고자 하는 북한에서는 인민을 위한 훌륭한 교화의 도구가 된다. 특히 비현실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요소가 적당히 조합되어 있는 전설의 특징은 환상과 재미를 추구하는 어린이들의 욕망을 채워줌과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설이 갖는 이러한 기능은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유치원 아동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야기’는 동심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알려져 있다.⁹ 『꽃봉오리』에 이야기란 이름으로 많은 글들이 게재되고, 그 이야기들이 구어체로 서술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린 아동들은 전설로 대표되는 친숙한 이야기 방식을 통해 ‘이 세상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인간’ 즉, 수령의 형상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전설이 갖는 이러한 기능은 어린이 잡지의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꽃봉오리』는 본고에서 살펴 본 2003년 이후 거의 매호 전설을 수록하고 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창간 이후 계속 잡지의 고정 코너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록된 전설은 모두 북한의 ‘혁명전설’로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과정에서 인민들 속에서 창작되고 전해졌다는 이야기들이다. ‘백

9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유치원교육의 방법과 형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광명백과사전』 7, 백사전출판사, 2011, 71면. 따라서 교양원은 아동들이 읽는 이야기 내용을 흔히 꿰뚫어 등장인물에 맞는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들려줄 것을 강조한다. 리승옥, 「사회주의도덕과목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4.3.17 ~18면.

두산전설’, ‘백두광명성전설’, ‘백두산녀장군전설’, ‘룡남산전설’, ‘금수산기념궁전전설’, ‘선군전설’ 등이 그것인데 2003년부터 2019년 4호까지 『꽃봉오리』에 수록된 전설은 모두 111편이다. 매 호 한 편씩 수록되고 있으나 간혹 한꺼번에 두 편씩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백두산전설 26편, 백두광명성전설 31편, 백두녀장군전설 8편, 룡남산전설 16편, 금수산기념궁전전설 9편, 선군전설 15편, 기타 전설이 6편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시간차를 두고 더러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도 있다.¹⁰

‘백두산전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이 신이한 능력과 비범함을 통해 활약한 이야기들이며, ‘백두광명성전설’은 김정일을 하늘이 낸 지도자로 신격화하고 있는 전설들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일성가계의 통치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두녀장군전설’은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백두산 3대 장군으로 추앙받는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에 관련된 전설을 말한다. 또한 선군전설은 모든 인민을 혁명 군사로 만들고자 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설이다. ‘룡남산전설’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는 룡남산이 계시 받은 집터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전설들을 말하며, 금수산태양궁전¹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로 북한은 김일성 사후 ‘금수산기념궁전전설’을 만들어 김일성 사망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그의 영생성을 주장하며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를 견고히 하고 있다.

10 참고로 백두산전설 「신기한 옷」은 2004년 2호, 2007년 2호, 2013년 2호, 2017년 2호 4회 수록되었고 백두광명성전설인 「2월16일」은 2003년 1호, 2012년 3호, 2018년 1호 3회 수록되었다. 이 외 백두산전설 「보물뒤웅박」, 「하늘로 날아오른 힘장수」, 「땅속에서 나온 총」과 백두광명성전설 「장수가 된 용삼이」, 「3대위인이 내린 명산」, 「룡마바위 장검바위」, 룡남산전설 「룡골산이 머리를 숙이다」, 선군전설 「죽음의 날에 뜬 비행기」, 「다시솟아난 온천」, 금수산기념궁전전설 「신비한 검은 돌」은 각각 2회씩 재수록 되었다.

11 1995년~2012년까지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불렸으나 2012년 이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꽃봉오리』에 전설이 매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록되고 있다는 점은 어린이들의 교양 방법에 있어서 전설이 담당하고 있는 몫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전설의 전승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꽃봉오리』는 기존 전설을 어린이용으로 더욱 짧게 각색한 다음 그에 어울리는 그림과 함께 번호를 붙여가면서 배치하고 있다. 아예 만화와 같이 컷을 나누어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5~12개 정도의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설의 특성상 글 작가의 이름은 없지만, 그림을 그린 그림 작가의 이름은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다.

원색적이면서도 사실적인 그림체에 전설이 가진 환상적인 분위기까지 전달해주고 있는 그림들은 아동들에게 수령이 가진 신성성과 영웅성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문해력이 낮은 유치원 아동들에게는 글 텍스트보다도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수령의 이야기들이 더욱 생생하고 강하게 각인될 것이다. 또한 이야기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어린 아동들에게 친숙한 구어체를 선택하여 친숙하고 편안한 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옛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다음은 『꽃봉오리』에 4번이나 수록되었던 백두산전설 「신기한 옷」의 글 텍스트 전문이다.

- ① 어느날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원 만석아저씨에게 일제놈들이 동지를 틀고 있는 성시를 정찰해오라고 하시면서 무명 바지저고리 한 벌을 주시었어요.
- ② 그 곳을 갈아입은 아저씨는 마음이 든든해서 성시가 한눈에 안겨오는 산마루에 이르렀어요.

- ③ 성시를 내려다보니 경찰이 여간 어려울 것 같지 않았어요.
- ④ 그가 성문에 들어섰는데 왜놈보초병은 웬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 ⑤ 왜놈수비대와 경찰서를 정찰해가지고 성문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왜놈들은 그한테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 ⑥ (거참, 이상한데?...옳지, 장군님께서 주신 이 옷 때문에 왜놈들이 날 알아보지 못했구나.)
- ⑦ 부대로 돌아가던 그는 땀을 들이려고 저고리를 벗고 바위우에 걸터앉았어요. 이때 갑자기 <유격대다!>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토벌대>놈들이 무리지어 다가오고 있었어요.
- ⑧ 싸창을 꺼낸 그는 왜놈들을 쏘아눕히면서 산꼭대기로 올리뛰었어요.
- ⑨ 낭떠러지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어요.(성시를 정찰할 때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 ⑩ (아차, 내가 이 저고리를 벗은 탓이었구나...)그는 서둘러 저고리를 입었어요.
- ⑪ 그러자 총부리를 겨누고 올라오던 왜놈들이 눈이 켜해서 두리번거렸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던 유격대가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잤는가?>
- ⑫ 부대로 돌아온 만석아저씨는 김일성장군님께 정찰한 것을 보고드렸어요. 그날 밤 성시의 왜놈들은 무리죽음을 당했어요.

- 『꽃봉오리』(2013. 2호)

백두산전설로 알려진 「신기한 옷」은 항일혁명투쟁 당시 김일성의 명령으로 적진을 살펴보러 간 유격대원이 김일성이 준 옷을 입으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적의 눈에 띄지 않아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이다. 모

두 12개로 구성된 짧은 글 텍스트는 글의 내용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는 12개의 그림과 함께 짝을 맞추어 소개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1992년에 발간된 북한의 『백두산전설집』 2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백두산전설집』에서는 약 6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아동용으로 각색한 것이다. 참고로 『백두산전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기한 옷」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시를 향해 발걸음을 다그치는 만석의 머리에는 문득 언젠가 중대장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 총구에서 튀어나온 총알이 중대장의 몸에 맞자 바위에 부딪친 듯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 중대장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기가 입고 있는 무명 바지저고리를 내려다보는 만석은 마음이 든든하였다. 만석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느새 성시가 뻗히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이른 만석은 잠시 땀을 들이며 형편을 살펴보았다. 두길이 넘게 성을 쌓고 그우에는 가시철조망과 전기선을 늘어 놓았는데 보기만해도 삼엄하였다. 왜놈수비대병영과 우편국, 농사시험장, 산림경영소가 자리잡고 있는 성시로는 총창을 번쩍거리며 왜놈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어디로 해서 성시에 들어갈까?) 만석은 여기저기를 두루 살펴보았다. 아무리 살펴봐야 성시로 들어가는 길은 육중한 성문밖에 없었다.

- 「신기한 옷」 일부, 『백두산전설집』 2권(1992)¹²

1992년 김우경에 의해 편집된 『백두산전설집』 2권에서는 유격대원 만석의 회상과 함께 김일성이 내려준 신기한 옷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가

12 김우경, 『백두산전설집』 2: 날개돋힌 흰말, 문예출판사, 1992.

지 더 추가될 뿐 아니라 인물의 심리상태와 배경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아동용에 비해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꽃봉오리』에 수록된 모든 전설들은 그림과 함께 아동용으로 재가공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설들을 통해 어린 아동들은 통치자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신기한 옷」에서 김일성이 내려 준 옷은 마치 마술을 부리는 투명 망토와도 같이 사람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게도 하고 적군의 총탄도 막아주는 기이하고도 신기한 옷이다. 이런 신기한 옷의 주인인 김일성은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이며, 그런 옷을 인민들에게 입히는 수령의 사랑과 은혜 또한 크나큰 것이다. 특히 옷을 입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마술과도 같은 환상적 모티프는 어린 아동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는 요소이다. 유독 이 전설이 같은 잡지에 여러 번 수록되었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감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편집부의 선별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북한의 아동들은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유치원 과정에서 살아있는 수령의 존재를 전설 속의 비현실적이고도 신이한 사건들을 통해 만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령을 신격화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해야 할 이야기 주인공들

어린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을 통해 행동과 언어를 배우게 된다. ‘거울뉴런’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모방심리는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행위에 담겨있는 생각 혹은 의도까지도 읽어내어 상대방과의 공감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가령 친한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모방하며, 우리라는 동질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꽃봉

오리』의 구성방식은 어린이들의 이런 모방심리를 충분히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수록된 글의 등장인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글의 배열순서와 배치방법 그리고 실제 어린이들의 현실감 있는 등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과목이 편제되어 있다.¹³ 모범적인 수령의 어린 시절 모습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라 배우는 과정에서 혁명적 세계관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꽃봉오리』 또한 수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고정 코너로 다루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¹⁴가 그것이다. 2003년부터 2019년 4호까지 총 121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는데 이 중 김일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19편,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1편, 나머지는 모두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로 김정일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많다. 「신비한 사격술」이란 제목과 함께 2012년 3호에 수록된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보면 김정은이 1초에 총탄을 3발씩이나 쏘며 그것들이 모두 목표판 1cm 안에 구멍을 낼 만큼 신비한 사격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꽃봉오리』에는 김정은의 또 다른 어린시절이야기나 그에 관한 전설을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대신 김정은의 현재 행보, 즉 애육원을 비롯한 보육시설이나 체육시설, 병원 등을 시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다는 기사성의 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3 박재환, 같은책, 86면.

14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원수님, 장군님, 수령님, 아버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코너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또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와 같이 호칭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비슷한 나이에 있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시 날짜나 나이, 장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감 있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테면 남보다 먼저 유치원 마당을 쓴 김정일(2003년 6호), 걸상을 소중히 다루는 김정일(2004년 5호), 일제에 맞서는 김일성(2005년 4호), 군사규율을 중요하게 여긴 김정일(2005년 6월), 흙 속에 묻힌 꽃 한 송이도 다시 일으켜 세워 준 김정일(2008년 4호), 공화국 기발을 사랑하는 김정일(2011년 5호), 뛰어난 탐구력을 보인 김정일(2012년 1호)의 이야기들이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어린시절에 행한 모범적인 행동들은 곧 사회주의 도덕교양 덕목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도덕교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덕목은 협동과 애국이며, 그 외 예절, 효, 근검절약, 청결, 우애 등이다. 유치원 교육에서 협동의 의미는 주로 일손 돕기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⁵ 효의 의미 또한 북의 체제에서는 결국 국가나 원수에 대한 충정으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회주의 도덕 교양 덕목들이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 배우고 흠모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점이다.

15 박재환, 같은 책, 95면.

[표 2] 『꽃봉오리』에 수록된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¹⁶

발행	대상	제목	덕목
2003년 1호	김정일	날아버린 앵무새를 불러오셨죠	예지력
2003년 2호	김정일	제비들은 쌍을 지어 돌아와요	탐구심
2003년 3호	김정일	난 미국놈들을 몽땅 쏘아 놓히 겠어요.	선군정신
2003년 4호	김정일	봉선화	폭격에 묻힌 꽃을 일으킴
2003년 5호	김정일	공화국기발	애국심, 선군정신
2003년 6호	김정일	한줌의 벼알	노동·식량의 소중함,
2004년 1호	김정일	따뜻한 사랑	사랑
2004년 2호	김정일	놀이감 자동차	탐구심
2004년 3호	김정일	한 장의 종이도	수령에 대한 충정
2004년 4호	김일성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고향사랑(만경대)
2004년 5호	김정일	걸상을 정히 다루게 하시여	나라재산 소중히 다루기
2004년 6호	김정일	제일 힘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군정신
2005년 1호	김정일	한 그루의 나무	생명존중
2005년 2호	김정일	그날 숙제는 그날로	부지런함
2005년 3호	김정일	되돌려보내신 밥곽	인민사랑
2005년 4호	김일성	돌벼락	항일, 계급정신
2005년 5호	김정일	딸나무를 하던 날에	산림지킴기
2005년 6호	김정일	어길 수 없는 군사규율	군사규율
2006년 1호	김정일	신발장에 붙이신 그림	지혜
2006년 2호	김정일	자기 힘으로	자립심
2006년 3호	김정일	운동회날에 있는 일	동무사랑
2006년 4호	김정일	벌떼속에서	용감, 동무사랑
2006년 5호	김정일	‘지’자로 만드신 말	김정일의 깊은뜻(남다름)
2006년 6호	김정일	아동중대	규율(아동중대)
2007년 1호	김정일	눈보라치는 밤에	인민 사랑

16 2003년~2019년 4호까지 수록된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시절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덕목을 본 연구자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이 중에는 반복되어 수록된 이야기도 더러 있다.

발행	대상	제목	덕목
2007년 2호	김일성	왜놈들을 때려잡는 마음으로	항일, 군인정신
2007년 3호	김정일	놓아주신 피꿀새	생명존중
2007년 4호	김정일	승리의 신심을 지니시고	군인정신, 반미
2007년 5호	김정일	콩다리연필	아껴쓰기
2007년 6호	김정일	한 장의 유리	나라재산 아끼기
2008년 1호	김정일	따발총	동무사랑
2008년 2호	김일성	말문막힌 순사놈	용감성
2008년 3호	김정일	인민을 위하시는 큰마음	인민사랑
2008년 4호	김정일	봉선화	폭격에 묻힌 꽃을 일으킴
2008년 5호	김정일	당창건기념일에 심으신 나무	수령의 뜻을 받들
2008년 6호	김정일	장군님의 고향	백두산정기 받은 김정일
2009년 1호	김정일	언제나 ‘대장’이 되시여	김정일의 리더십
2009년 2호	김정일	대변에 풀어주신 수수께끼	탐구, 창의성
2009년 3호	김정일	몸소 만드신 조선지도	김정일의 깊은 뜻
2009년 4호	김정일	봉투에 넣으신 군밤	(수령에 대한) 효
2009년 5호	김정일	일기장	(김정숙)효
2009년 6호	김정일	몸소 주우신 벼이삭	노동·식량의 중요성
2010년 1호	김정일	대장이 되겠다고 하시며	선군정신
2010년 2호	김일성	어린 김선생	항일정신
2010년 3호	김정일	제일 먼저 배우신 노래	김일성을 받들
2010년 4호	김정일	웃어른들을 존경하시며	웃어른을 존경
2010년 5호	김정일	‘지’자로 만드신 말	김정일의 깊은뜻(남다름)
2010년 6호	김정일	어길 수 없는 군사규율	군사규율
2011년 1호	김정일	한 장의 종이도	김일성을 받들
2011년 2호	김정일	자기 힘으로	자립정신
2011년 3호	김정일	신발장에 붙이신 그림	지혜
2011년 4호	김정일	일곱알의 도마도	나눔
2011년 5호	김정일	공화국기발	애국심
2011년 6호	김정일	한 외국인장령의 탄복	사고력, 애국심
2012년 1호	김정일	뛰어난 탐구력	탐구력(군사적안목)

발행	대상	제목	덕목
2012년 2호	김일성	혼쌀이 난 경찰아들놈	조선사랑
2012년 3호	김정일 김정은	송악산전투작전방안 신비한 사격술	군사적 두뇌키우기 백두산3대장군사격술을 이어받은 김정은
2012년 4호	김정일	벌떼속에서	용감
2012년 5호	김정일	당창건기념일에 심으신 나무	뜻을 받들
2012년 6호	김정일	한밤을 지새우시며	충정(김일성)
2013년 1호	김정일	겨울딸기	탐구(실험)정신
2013년 2호	김일성	왜놈들을 때려잡는 마음으로	항일, 군인정신
2013년 3호	김정일	몸소 만드신 조선지도	김정일의 깊은뜻(납다름)
2013년 4호	김정일	걸상을 정히 다루게 하시어	나라재산 소중히 다루기
2013년 5호	김정일	한 알의 사과	동지사랑 정신
2013년 6호	김정일	나도 스키를 탈래요	항일, 군인정신
2014년 1호	김정일	우리 땅크 나간다	용감
2014년 2호	김일성	고무총	항일정신
2014년 3호	김정일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배움
2014년 4호	김정일	숲의 노래	산림복원
2014년 5호	김정일	우리 인민의 것	산림지키기
2014년 6호	김정일	꼭 이긴다고 하시며	반미, 군인정신
2015년 1호	김정일	뜻깊은 설맞이 모임	효성
2015년 2호	김일성	축구경기	일제에 대항
2015년 3호	김정일	얇는 동무를 위하여	동무사랑
2015년 4호	김일성	하나로 뭉친 힘	일제에 대항
2015년 5호	김정일	곱게 다리신 양말	효 (충정)
2015년 6호	김정일	내일 날씨는 개입니다	비범한 판단력
2016년 1호	김정일	겨울딸기	탐구(실험)정신
2016년 2호	김정일	제비들은 정말 자기 동지로 돌아올까요?	탐구정신
2016년 3호	김정일	제비들이 낮추르면 왜 비가 올까요?	탐구(관찰력)정신

발행	대상	제목	덕목
2016년 4호	김일성	참새는 나쁜 새	일제에 대한
2016년 5호	김정일	한줌의 벼알	노동의 소중함
2016년 6호	김정일	원아들과 함께 받으신 생일상	인민사랑
2017년 1호	김정일	명석한 판단	명석한 판단
2017년 2호	김정일	잘라버린 나무가지	효성
2017년 3호	김정일	애솔나무 한 그루	산림지킴기(국토사랑)
2017년 4호	김정일	산돌이가는 길	근검절약
2017년 5호	김일성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사랑
	김정일	우리나라 기발	애국심
2017년 6호	김일성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게 동무다	동무사랑
	김정일	글씨에 어린 사랑	인민사랑
2018년 1호	김정일	동생의 손을 그려 보내신 편지	효성, 사려깊음
2018년 2호	김일성	말바위에서	선군정신
2018년 3호	김정일	1등한것보다 훌륭하다	동무사랑
2018년 4호	김일성	왜놈들은 거미	일제에 대한
	김정일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	협동심
2018년 5호	김정일	이어받으신 장대	효성, 뜻을 받들
2018년 6호	김일성	빨간 대추	효성
	김정일	작문 ‘어머니’	효성
2019년 1호	김일성	썰매바위	효
	김정일	내 고향은 어딴니까?	백두산 정기 받은 김정일
2019년 2호	김일성	제일 아름다운 만경대	고향사랑
	김정일	신발장에 붙은 그림	지혜
2019년 3호	김일성	무지개잡이	탐구심
	김정일	뛰어난 탐구력을 지니시고	탐구심
2019년 4호	김일성	골탕먹은 왜놈순사	일제에 대한
	김정일	빨간 도마도	나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어린시절이야기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어린 이들의 사진이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따라배워요」

라며 김정일의 어린 시절 모습을 따라 하고 있는 실제 유치원 어린이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4호에서는 김정일이 폭격으로 흙 속에 묻힌 봉선화를 일으켜 세운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옆 장에서는 “아버지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워 꽃을 사랑하고 있는 강령군 남산유치원 김광희, 정학영, 리설경, 리금복, 리영희 어린이”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사진까지 잡지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꽃봉오리』는 매호 전국 각지의 유치원과 이곳의 모범적인 원생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제놈들을 때려부시는 군사놀이 잘 하고 있는 어린이들(2006년 2호),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이들(2007년 4호), 탐구심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2009년 2호), 한 알의 벼알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어린이들(2010년 5호, 2015년 5호), 일손을 잘 돕는 어린이들(2013년 2호), 동무를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어린이들(2016년 1호), 공부도 잘 하고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 어린이들(2019년 3호)은 모두 김정일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며 “나라를 위한 큰마음을 키워가고 있는”(2007년 5호) 북한의 어린이들이다.

따라 배운다는 것은 내면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타인이나 집단 등의 사회적 영향을 흡수한 개인이 그의 사고와 행동, 감정 등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대원수’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다음 장에 그 모습을 배워서 닮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소개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모방심리를 더욱 자극하여 모방 이상의 동질감과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잡지의 전략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김정일의 어린 시절을 따라하고 있는 실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들이 따라해야 할 인물의 전형은 잡지에 수록된 또 다른 이야기에도 숨어있다. 매호 수록되는 「항일혁명투쟁이야기」는 항일혁명 당시 활약한 아동단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김일성과 그를 돕는 유격대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아동단원들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로 유격대에 통신쪽지를 전달할 임무를 받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다.('아동단원 룡남이와 명숙이', 2005년 4호) 또는 태연하게 공놀이를 하는 척하며 경찰서를 정찰하기도 하고('슬기로운 두 아동단원', 2006년 3호), 유격대원들을 숨겨놓고는 능청스런 연기로 적을 따돌리기도 한다.('용감한 두 아동단원', 2018년 6호). 또한 뼈라에 돌을 싸서 고무총으로 날려 보내는 것도('아동단원 문길이', 2007년 4호) 싸우러 나간 유격대원들을 대신하여 집안 일손을 돕는 것('일하기를 즐겨한 아동단원들', 2010년 4호)도 모두 아동대원들의 몫이다. 그런가하면 김일성 장군에게 직접 솜옷을 만들어 올리며 자신들의 충정을 표현하기도 한다.('뜨거운 사랑', 2016년 2호) 비록 어린 아동단원의 소소한 역할이지만 그것은 조직을 위협에서 구해내는 결정적

인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단원들의 조국에 대한 충정만큼은 유격대원들 못지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발각될 경우에는 통신 쪽지를 먹어 치우기도 하고(「비밀은 생명」, 2019년 3호), 9살 어린 나이에도 적의 물질적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아동단원 금순이」, 2019년 1호) 뿐만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서는 자신은 날창으로 죽이고 그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며 적을 감동시키기까지 한다.(「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2018년 4호) 이들이 보여주는 애국심과 충성심, 조직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모습은 사회주의 도덕 교양 덕목 가운데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동단원들의 모습은 현실의 어린이들이 닮고 따라해야 할 또 다른 영웅들이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습은 유사시에는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일의 모범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을 충실한 인민군대로 키우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림동화에 숨어있는 가치와 덕목

『꽃봉오리』는 김일성, 김정일이 들려준 옛이야기를 각색했다는 그림동화와 동물들이 등장하는 짧은 그림동화, 그리고 세계명작동화를 소개하고 있다. 정확한 장르 명을 달아 놓지 않았지만 이들 작품을 그림동화라 지칭하는 것은 글과 함께 “매 장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화그림책의 특성¹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그림동화는 잡지의 고정코너는 아니지만 등장빈도가 상당히 높다. 전설이야기, 대원수의 어린시절 이야기, 혁명이야기 등 주로 사상성을 표면에 드러낸 이야기 위주로 구

17 리정실, 「동화그림책의 특성과 그를 통한 교양방법」,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4. 1호, 38~39면.

성되던 잡지는 2003년 5호에 수령이 들려주었다는 옛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04년부터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동화들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06년 3호부터는 「세계명작동화」라는 이름으로 이솝우화, 그림형제의 동화 등 외국의 동화들도 간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동화는 『꽃봉오리』에 수록된 독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사상성이 표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남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문학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동화와 우화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의인화, 환상, 과장 등 흥미 있는 형상수법으로 인간생활을 그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보다 깊은 정서적 체험과 강한 인상을 안겨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⁸ 특히 “선명하고 명확한 선과 색으로 작품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동화그림”은 어린이들의 정서교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정서교양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 감상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덕목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입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림동화의 그림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림의 형상 속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 하는 것을 알며 좋은 것을 지지하고 따르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들이 등장하는 우화가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도 이런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북한 유년문학에서 의인화는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법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의인화된 동물들의 세계는 곧 어린이 자신들의 세계이다. 동물 의인화를 통해 아동들은 재미있게 이야기

18 정화수, 「동화, 우화가 어린이교양에 주는 영향」,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5, 3호, 49면.

에 몰입하게 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생활과 결합시킴으로써 도덕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실제 작품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3년 6호에 수록된 「망신당한 부자」는 김정숙이 김정일에게 들려주었다는 옛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교훈은 사회주의 도덕 교양 덕목의 하나인 예절이다.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예절이 없으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예절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자 아들의 탐욕스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자는 곧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던져 주고 있다. 2007년 5호에 수록된 「봉변당한 욕심쟁이들」에서도 욕심을 부리다 봉변을 당하게 된 인물들은 애초에 모두 부자들이다. 애국, 예절, 효, 근검절약 등의 도덕적 가치들은 남한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 덕목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 적으로 상징되는 동물들의 침입과 싸움 등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것은 도덕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을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사회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도덕 교양 덕목으로 중요시 되는 애국, 예절, 효, 협동, 근검절약과 청결, 우애 등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동화들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 송냥이와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게으른 「꿀꿀이의 뉘우침」(2006년 4호), 작은 힘도 합치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갈색곰의 뉘우침」(2008년 4호), 하나로 뭉친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메돼지의 교훈」(2010년 2호),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다 쫓딱 망한 멍멍이 이야기를 담은 「여우의 보물망치」(2010년 3호), 아무리 힘이 센 장수곰도 혼자 힘으로는 장수가 될 수 없다는 「우쭐대던 장수곰」(2011년 1호)

등은 모두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들으로써 사회주의 도덕 교양 덕목 중에서도 협동과 노동을 강조한 동화들이다.

또한 2006년부터 잡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세계명작동화’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록된 세계명작동화는 「금게사니」(2006년 3호), 「큰 순무우」(2009년 5호), 「고향으로 돌아온 시골쥐」(2010년 5호), 「박쥐이야기」(2011년 5호), 「엄마를 찾아서」(2012년 3호), 「빼노끼오의 모험」(2016년 5호), 「신데렐라」(2017년 3호), 「엄지손가락공주」(2019년 4호) 이다. 「금게사니」와 「큰 순무우», 「신데렐라」는 그림형제의 동화로 알려진 작품들이며, 「고향으로 돌아온 시골쥐」와 「박쥐이야기」는 이솝우화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마찾아 삼만리’로 알려져 있는 「엄마를 찾아서」와 「빼노끼오의 모험」은 1800년대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명작동화이며 「엄지손가락공주」는 안데르센의 동화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작품은 모두 8편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선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패쇄적인 북한에서 명작이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외국 동화에 대한 선별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① 먼 옛날 부지런한 할아버지가 밭에 순무우씨를 뿌렸어요.
- ② 싹이 트자 매일과 같이 물을 주며 정성다해 가꾸었더니 굉장히도 크게 자라 혼자서는 뽑을 수가 없었어요.
- ③ 할머니를 데려다 함께 힘을 썼으나 어렵었어요.
- ④ 이번에는 두 손녀를 데려왔지만 마찬가지로였어요.
- ⑤ 또다시 멍멍이와 야옹이를 불러냈지만 순무우는 뽑히지 않았어요.
- ⑥ 마지막으로 작은 생쥐까지 데려와서야 큰 순무우를 뽑을 수 있었어요.

- 「큰 순무우」, 『꽃봉오리』(2009.5)

인용한 작품은 2009년 5호에 게재된 「큰 순무우」로 수록된 작품에서 그림을 제외한 글 텍스트만을 가지고 온 것이다. 단 6개의 문장과 그림으로 구성되어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도덕 교양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협동의 정신이 선명히 드러난다. 또한 우화 「고향으로 돌아온 시골쥐」(2010년 5호)에서 도시 쥐가 부러워 따라간 시골 쥐는 “수수한 음식이라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시골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게 된다. 「빼노끼오의 모험」(2016년 5호)에서도 피노키오를 유혹하는 돈, 사탕과자, 극장표는 모두 자본주의의 상징이다. 이러한 유혹에 잘못 넘어갔다가는 돈벌이에 이용된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반면 「황금거위」로 알려진 「금계사니」(2006년 3호)에서 삼형제 중의 막내가 황금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형제와는 달리 욕심 내지 않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난쟁이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데렐라」(2017년 3호)에서 의붓어머니와 언니들에게 학대받는 신데렐라의 모습은 잡지에 빈번히 소개되는 다른 이야기들과 오버랩 되어 지배계급에 의한 착취를 연상시킨다.¹⁹ 결국 잡지는 ‘세계명작동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의 동화와 우화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잡지 편집자들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북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 교양 덕목들을 내면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

19 물론 이와 같은 본 연구자의 해석들이 자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잡지의 구성과 편집 체계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본문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엄마를 찾아서」(2012년 3호)에서 주인공 마르코가 갖은 고생 끝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결말 부분에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닥쳐와도 어머니에 대한 마르코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라는 내용은 마치 어버이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러한 해석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서로 「고향으로 돌아온 시골쥐」(2010년 5호)의 그림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도시로 간 시골쥐를 노란 머리의 아저씨가 빗자루로 후려치는 그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노란머리의 아저씨는 서양인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중요의 대상으로 꼽히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다.

『꽃봉오리』에서 소개한 ‘세계명작동화’들은 남한에서도 잘 알려진 동화들이며, 추후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개별 작품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잡지의 전략적 구성과 배치에 의해 특정 가치의 전달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4) 반복되는 동물 비유를 통한 계급교양

유년문학 창작에 있어 의인화 수법의 효과²⁰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이야기 속에 유독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북한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든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있다는 점, 그러다보니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의 경우 그 캐릭터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북한의 동화나 이야기에서 악한 동물의 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것은 승냥이와 여우, 까마귀, 독수리이다. 반면 토끼와 산양, 노루, 다람쥐는 착한 짐승들로 묘사되고 있다.²¹ 그 중에서도 악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동

20 선순영, 「동화를 통한 교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양원』, 교육신문사, 2013. 3호, 44면. 이 글에서 “유치원기 어린이들은 토끼, 고양이, 닭, 소, 개 등 못 짐승들이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의인화수법을 실제 한 것처럼 감수하며 거기에 깊이 이끌려들어가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1 「애기토끼와 애기곰」은 매호 잡지에 실리는 만화이다. 4컷으로 구성된 만화이나 간혹 4컷 이상으로 길어질 때도 있다. 여기에서 곰은 생각이 우둔하여 실수를 자주하는 어리석은 동물인데 반해 토끼는 이런 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지혜로운 캐릭터로 등장한다. 2006년 5호의 「다시 찾은 샘」에는 산양, 노루, 다람쥐,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산양과 노루, 다람쥐는 착한 동물로 독수리는 포악한 동물로 묘사된다. 또한 2006년 4호 「꿀꿀이의 뉘우침」, 2006년 6호 「너구리의 새 결심」에서 승냥이는 착한 동물들의 식량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나쁜 동

물은 ‘승냥이’이다. 승냥이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잔인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 대개 착한 동물들과 악한 동물들은 이야기 속에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을 하기 위해서는 선악의 확실한 대비가 효과적이라는 논리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동물들이 등장하는 동화와 우화는 계급교양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 계급교양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반제반미교양’의 중요성은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 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략)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섭니다.

- 김정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²² 부분

인용문에서와 같이 전쟁을 겪지 않은 새 세대들에게 있어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미일제

물로 묘사된다. 또한 2010년 3호 「여우의 보물망치」에서 여우는 주인이 없는 사이에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간사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22 김정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게” 만들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하는 것이 계급 교양의 근본적인 목적이다.²³ 이러한 목적의식이 잡지 『꽃봉오리』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승냥이’의 상징적 의미와 비유를 통해서이다. 2006년 4호 「꿀꿀이의 뉘우침」(2006년 4호)에서는 수영을 못하면서도 수영훈련을 게을리 하던 꿀꿀이에게 갑자기 승냥이가 나타나 위협하자 수영을 할 줄 아는 다른 동물 친구들이 구해준다. 결국 “승냥이와 싸워 이기려면 수영도 잘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이처럼 승냥이는 동화나 우화에서 항상 적으로 등장한다. 갑자기 나타나 식량을 탈취하고, 착한 동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나쁜 역할을 도맡아 한다. 이와 같은 ‘승냥이’캐릭터는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승냥이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강한 적대감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화나 우화에서는 순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악한 동물로만 그려졌던 ‘승냥이’의 실체가 같은 잡지에 수록된 또 다른 글들을 통해 구체화되며 그 상징적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① 두 아이가 새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놓어버렸어요
- ② 아이들은 나무우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올라갔어요. 그 나무는 미국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는 집마당에 서있는 나무였어요.
- ③ 선교사님은 조선애새끼들이 미국사람들이 사는 곳에 함부로 들어온다고 지껄이며 마구 때리고 제놈들의 병원으로 끌고갔어요.

23 동급단, 「계급교양을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방도」,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5.3. 56~60면.

④ 미국놈들은 두 아이의 몸에서 피를 몽땅 뽑아 숨지게 했어요.

- 「두발가진 승냥이」(2014년 4호)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발가진 승냥이’는 미국인, 구체적으로는 미국인 선교사를 가리킨다.²⁴ 그들은 조선 아이들의 피를 몽땅 뽑아버려 죽게 만드는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이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글에서는 ‘제중병원’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명도 나오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낮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저녁에는 피를 뽑아 팔아먹었으며, 이렇게 1년 동안 피를 빨아 먹은 ‘승냥이미국놈’들은 끝내 아이들을 불태우고 이것을 목격한 간호원들도 미국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다.(「사람의 피를 빨아 먹은 미국놈」, 2017년 5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국해방전쟁 때에는 마을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아이들을 생매장시켰으며(「승냥이」, 2009년 1호), 광산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팔이 기계에 잘려나갔을 때에도 너털웃음을 짓고, 무너진 굴속에서 신음하는 광부의 팔을 도끼로 잘라 버릴 만큼 잔인한 자들이다.(「두발가진 승냥이」, 2005년 1호)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저 돈 밖에 모르는 잔인하고 비열한 자들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잡지는 이런 잔인한 만행에 학대받는 조선 인민들의 상황을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속에 등장하는 미국인은 탐욕스럽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24 북한에서 해방 직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인들의 친일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후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미관은 기독교를 포함한 형태로 진행되며 미국과 기독교간의 연결고리가 형성 되었다. 특히 미국과 기독교의 표상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구한말선교사야말로 미국과 기독교 비판의 상징적 테마로 활용되었다. 이런 기독교 비판을 수반한 반미관의 원형에 해당하는 작품이 6.25전쟁기에 창작된 한설야의 단편소설 「승냥이」이다. 남원진의 연구에 따르면 한설야의 「승냥이」는 대표적인 북한의 정전으로 자리잡으며 이후 냉전 체제 아래서 수많은 「승냥이」작품군이 각색, 개작되어왔다는 것이다. 남원진, 「한설야의 「승냥이」각색 양상 연구」, 『한국학연구40』, 고려대학교학연구소, 2012, 5~37면.

이러한 편집구성과 배치는 잡지를 읽는 어린 유치원 독자들에게 승냥이는 곧 잔인하고 야만적인 침략자 ‘미제’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개심을 조장하는 세뇌교육을 통해 ‘미국’은 반드시 격멸시켜야하는 대상으로서 아동들의 뇌리에 자리 잡게 된다.

5) 학습퀴즈에 나타난 통합교육의 진실

『꽃봉오리』는 소학교 입학을 앞 둔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이기 때문에 이야기거리 외에도 셈세기, 과학상식, 한글, 상식, 사교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퀴즈 들이 등장한다. 주로 잡지의 끝 부분에 배치하고 있는데, 각 질문들이 그림과 함께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흥미롭다. 문제 유형들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나름의 사교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 공포한 이후 사회주의 교육 강국 건설을 목표로 창조형·실천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적 추이와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제도와 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지식의 전수보다는 놀이와 활동 위주의 교수방법을 강조한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은 이미 김정일 시대부터 강조되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의 통합교육은 하나의 주제에 5개의 영역내용(혁명사상교육과 도덕교양, 우리말교육, 지능교육, 정서교양, 몸단련교양)을 놀이나 활동방식으로 서로 연관시키는 종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²⁵ 그러나 북한의 통합교육 기저에

25 양옥승·신은미, 「북한의 유아교육 정책 분석」, 『유아교육연구』 36권 2호, 2016, 115~116면. 통합

는 역시 정치사회화라는 목적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학습퀴즈’의 문제 양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능교육을 위한 썸세기 문제 「모두 몇 대 일까요?」(2003년 4호)를 보면 “우리 비행기는 몇 대이고 미국 놈 비행기는 몇 대일까요?”, “떨어지는 미국 놈 비행기는 몇 대 일까요?”라고 질문하고 있다. 위 질문과 함께 북한의 인공기를 단 비행기들과 폭격을 맞고 떨어지는 비행기들의 그림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2014년 3호에서는 “3명의 사격선수가 3발씩 총을 쏘았어요. 누가 1등 일까요?”라고 묻고 있는데, 그림 속에는 총을 든 3명의 사람과 3개의 과녁판이 있다. 과녁판에 박힌 총알의 점수를 더해 보는 썸세기 문제인 것이다.

썸세기 문제가 아닌 상식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자주 나타나는데, 2005년 3호의 「무엇으로 쏘아야 할까요?」는 페이지의 양 면에 각각 3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줄을 그어서 연결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USA라고 쓰여 있는 비행기, 철모를 쓴 군인, 배의 그림이 있고, 오른 편에는 해안포, 고사포, 자동보총이라고 쓰여 있는 3개의 무기그림이 있다. 같은 해 4호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에서는 보초를 서고 있는 미군의 모습과 건물 그림이 나오는데 “인민군 경찰병 아저씨가 미군사령부 작전실에 들어가 비밀 문건을 빼내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라고 묻고 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인 듯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꽤 창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하다. 이 외에도 직업의 종류를 알아보는 문제에 있어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예시로 주어진다든지 사물의

교육에 관한 북한의 평론으로는 김종철, 「유치원 통합교육의 특성과 우월성」, 『교양원』, 교육신문사, 2013년 1호, 32면.

쓰임, 상식 등을 묻는 다양한 질문의 예시에 총, 탱크, 전투기 등의 무기 그림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혁명사상교양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선군사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선군사상은 혁명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총대를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인민군대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한다. 『꽃봉오리』에는 “김정일 장군님의 한생을 변함없이 총대로 보위하는”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어린이들의 다짐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 전위대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투쟁정신과 증오사상을 키워 온 북한 혁명사상교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북한 유아교육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실상을 『꽃봉오리』에 구성된 학습퀴즈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잡지를 대상으로 북한식 통합교육의 한 단면을 살펴 본 것에 불과하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북한 교육의 동향은 세계적인 추세와 남한의 교육방식과도 일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기저에는 언제나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인간형을 완성해내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잡지 『꽃봉오리』의 체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유년잡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잡지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북한의 교육목적과 부합하여 아동에게 내면화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

의 아동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 중대한 사명을 부여 받는다. 따라서 조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동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이 된다. 특히 유년기는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잡지 『꽃봉오리』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와 목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유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미와 흥미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교양잡지이다. 컬러인쇄와 함께 사진 그림 등의 풍부한 시각자료, 전설, 만화, 동화, 우화 등 비교적 다양한 이야기로 편집된 구성은 유년 아동을 위한 종합잡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이란 북한의 모든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교양덕목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를 기본으로 학교와 사회, 가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 질서 등을 말한다. 특히 조직과 집단에 대한 애착심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정신,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한 증오심을 갖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 교양에 있어 기본이 되는 덕목들이다.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내면화를 위해 『꽃봉오리』는 잡지의 구성과 편집에 있어 전략적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잡지의 체제와 구성에 나타나는 특성을 5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꽃봉오리』에 매호 수록되고 있는 북한의 혁명전설은 아동을 위한 훌륭한 교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유치원 과정에서 아동들은 김일성 일가의 구체적 면모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실제와 환상이 결합된 전설의 특징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통치자를 유일무이한 대상으로 신격화하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둘째, 북한 통치자들의 어린시절 모습과 그것을 충실히 따라하고 있는 실제 어린이들의 등장은 잡지의 구독자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하여 집단에 대한 동질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혁명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동영웅들의

모습은 따라 배워야할 모범으로써 애국심과 충성심을 내면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그림과 함께 소개되는 동화와 우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사상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선별된 작품들은 대부분 애국, 협동, 근면 등과 같이 주로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북한 사회에서 ‘송냥이’는 미국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동화나 우화를 통해 특정 동물에 대한 캐릭터를 고정화시키며 이를 계급교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잡지의 학습퀴즈를 통해 최근 북한에서 지향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퀴즈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능교육의 일환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문제의 구성방식을 보면 북한의 모든 교육과정은 결국 사회주의 인간형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꽃봉오리』는 취학을 앞둔 유치원 아동들의 사회주의 도덕교양을 위한 교양잡지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의 체제 아래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남. 북 어린이들의 소통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그러나 성인 잡지보다 도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상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두고 볼 때, 남북관계의 성급한 낙관론 보다는 단계적 이해와 극복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꽃봉오리』(2003~2018), 『교양원』, 『교육신문』, 『로동신문』
『조선대백과사전』 2, 백과사전출판사, 1995. 『조선대백과사전』 25, 백과사전출판사, 2001.
『광명백과사전』 7, 백과사전출판사, 2011.
김우경, 『백두산전설집』 2: 날개돋힌 흰말, 문예출판사, 1992.

2. 논문 및 평론

- 김정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중심」,
『철학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1, 17~18면.
김정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신천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일군
들과 한 담화,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1~5면.
김종철, 「유치원 통합교육의 특성과 우월성」, 『교양원』, 교육신문사, 2013. 1, 32면.
김혜란, 「어려서부터 계급적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5.2, 5~8면.
남원진, 「한설야의 「승냥이」 각색 양상 연구」, 『한국학연구』 40,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12,
5~37면.
동금단, 「계급교양을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방도」, 『교양원』, 교육신
문사, 2005.3. 56~60면.
리승욱, 「사회주의도덕과목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4.3,
17~18면.
리정실, 「동화그림책의 특성과 그를 통한 교양방법」,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4. 1, 38~
39면.
선순영, 「동화를 통한 교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양원』, 교육신문사, 2013. 3, 44면.
양옥승·신은미, 「북한의 유아교육 정책 분석」, 『유아교육연구』 36권2호, 2016, 109~121
면.
엄현숙, 「북한 유치원 교육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8권2호, 2014, 67~
109면.
정화수, 「동화, 우화가 어린이교양에 주는 영향」, 『교양원』, 교육신문사, 2005, 3, 49면.
최윤정, 「북한의 그림책 장르인식과 아동그림책에 나타난 탈이념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3, 2018, 117~149면.

3. 단행본

강운빈, 『인간개조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85.

최민수, 『북한 유아교육론』, 문음사, 1996.

박재환, 『북한의 유치원 교육』, 양서원, 2002.

Abstract

The System of North Korean Early Childhood Magazine
Kkotbongori and the Internalizing Strategy
of Socialist Moral Education

Choi, Yoonjeong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Kkotbongori*, a picture magazine for kindergarten children in North Korea. The magazine is an educational program for kindergarten children, covering the content needed in socialist moral education and the intellectual training of pre-school children. Since there were few discussions about the magazine, the study aim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magazines in North Korea by looking into its system and composition.

“Socialist moral education” is a general cultural virtue required from all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covers the manners, norms, and orders that should be observed in school, society, and home based on loyalty to the leader and patriotism. The basic items of virtue in socialist moral education are attachment to the organization and group, the spirit of sacrificing oneself for the community, and hatred for imperialists. *Kkotbongori* takes strategic methods for its

composition and editing to promote the internalization of socialist moral education. There are five major types of its strategies: an encounter with the ruler through legends, presentation of exemplary protagonists, virtue of socialist moral education hidden in fairy tales with pictures, social class culture based on the analogy of animals, and Seongun idea in a learning quiz. These strategies meet the needs and educational goal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trying to build the types of man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In short, *Kkotbongori* served its mission fully as a culture magazine for the ideological education of kindergarten children before elementary school.

- Key words : kindergarten in North Korea, childhood,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magazine, picture magazine, *Kkotbongori*, socialist moral education, internalization

- 논문접수일: 2019. 10. 24.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